

전주한옥마을, 국가대표 관광지 입증

문체부·한국관광공사
관광100선 3회 연속 선정
전북지역에선 유일

전주한옥마을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100대 관광지인 '한국관광 100선'에 전북 지역에서는 유일하게 3회 연속으로 선정되면서 국가대표 관광지임을 재차 입증했다. 전주한옥마을은 앞서 공공분야 빅데이터 분석 결과 연간 방문객 수가 1000만명을 돌파하면서 대한민국 대표 관광지로서 자리매김한 데 이어, 지난해에는 세계적인 여행잡지 '론리플래닛'이 선정한 '1년 안에 꼭 가봐야 할 아시아 명소' 3위에 선정되는 등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적인 관광명소로 급부상했다.

9일 전주시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이날 온라인 설문조사와 통신사·소셜·내비게이션 거대자료(빅데이터) 분석, 관광객 증가율, 검색량 등 관광 통계 분석, 전문가 17인의 서면·현장 평가를 종합해 전주한옥마을 등 국내 대표 관광지 100곳을 '2017~2018년 한국관광 100선'으로 선정·발표했다.

'한국관광 100선'은 문체부와 한국관광공사 가 지난 2013년부터 매 2년마다 지역의 대표 관광지 100곳을 선정해 홍보하는 사업으로, 3회 연속으로 선정된 관광지는 전주한옥마을을 포함한 전국 30곳에 불과하다. 이와 관련, 한국관광공사는 대한민국 공식 누리집(www.visitkorea.or.kr)을 통해 전주한옥마을을 국내 최대 규모의 한옥촌이 밀집해있어 전통의 맛이 느껴지는 관



전주한옥마을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100대 관광지인 '한국관광 100선'에 전북지역에서는 유일하게 3회 연속으로 선정됐다.

광지이자, 각종 문화·체험시설이 풍부한 여행지로 소개하고 있다. 또한 △불거리와 먹거리, 즐길거리가 풍부한 행복 여행지 △한국 전통문화의 아름다움을 보고, 듣고, 배우는 재미를 선사하는 관광지 △느릿느릿 여행하는 즐거움이 있는 국제도시로 설명하고 있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전주는 지난해 미국 CNN을 통해 아시아의 문화관광 3대도시로 소개됐다. 또, 오는 5월에는 세계인이 지켜보는 U-20월드컵이 열리고, 제2의 다보스포럼으로 키워갈 전주 세계무형유산 포럼도 시작된다"며 "대한민국 문화영토는 전주를 통해 세계로 확장되고 있다. 울

한해 답대한 문화강국의 꿈을 착각 일귀 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주한옥마을 등 한국관광 100선 선정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관광공사 누리집 대한민국 공식 누리집(www.visitkorea.or.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영재 기자

▶ 공연 & 전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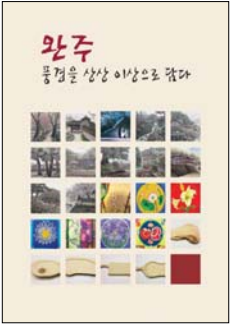
완주문화재단 '완주 풍경을 상상 이상으로 담다'

(재)완주문화재단 이사장(박성일)은 완주군청 로비에서 '완주 풍경을 상상 이상으로 담다' 전을 열고 있다. 이번 전시는 전북도문화관광재단이 주최하고 완주문화재단이 주관하는 예술가 발굴 및 연계를 위한 문화재단 간 협력사업의 일환으로, 완주 주민을 대상으로 한 교육생 모집 및 교육 과정을 통해 기획됐다.

전시에는 완주군에서 활동하는 예술분야 3개 단체 작가들과 지역민이 함께 참여해 다양한 작품을 선보인다.

한국화는 완주군의 명소와 아름다운 풍광을 수묵담채로 그려냈으며 서양화는 작가의 작품 세계를 다양한 색과 구도를 활용하여 예술의 색채미를 표현한다. 또 선별한 나무의 형태를 잘 살려 실생활에 적합하도록 제작된 목공예는 실용성이 돋보인다.

(재)완주문화재단 상임이사(권창환)는 "그동안 주민들을 위한 다양한 예술분야의 참여 기회가 적었다"며 "이번 전시는 직접 참여하여 전시가 이루어진다는 즐거움을 경험하도록 하였다"고 했다. 이어 "전시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잠재된 재능 발휘와 지역문화에 대한 긍지 및 자부심을 가지도록 사업을 더욱 개발하고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전시는 14일까지. **문의 282-3355. /정해은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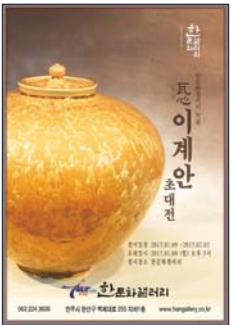
한문화 갤러리 '와심 이계안 초대전'

한문화 갤러리(관장 김이재)는 오는 2월3일까지 '와심 이계안 초대전'을 갖는다. 이계안 도예가는 현재 경상남도 최고장인 1호이며, 행정자치부 문화예술부문 신지식인 및 한국예술 문화명인에 선정되어 50여 년 동안 전통과 현대의 폭넓은 길을 떠나

돌며 도예의 길을 묵묵히 걸어오고 있다. 이번 전시에서 '결정·진사·삼체'의 표현 기법이 두드러진 그의 유려하고 신비로운 도예작품을 감상할 수 있다. 결정은 표면에 어떤 형태로든 변화된 모양을 가진 것을 말하며 이는 냉각과정에서 볼 수 있다. 또 예기치 않는 시행착오를 많이 겪게 되는 결정 유약에서는 새로운 결정을 가지기 위한 작가만의 특별한 표현기법을 엿볼 수 있다.

진사 기법은 안료에 구리를 넣어 환염염으로 색깔을 내는 것으로 붉은색·푸른색·노란색 등 강하고 화려하며 독특한 색깔이 한눈에 드러나 보인다. 삼체는 세 가지의 색이 배합된 것으로 이 기법을 입힌 작품은 흡사 우주를 담고 있는 듯한 느낌을 풍긴다. 김이재 관장은 "이계안 선생님의 꺼지지 않는 열정과 겸손을 담은 작품을 통해 전시를 관람하는 분들이 진한 삶의 회로애락을 느낄 수 있을 것"이라며 "전북작가들의 느끼와 색다른 작품세계를 통해 관람객들에게 새로운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와 다양한 볼거리가 있는 전시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전시와 연계해 갤러리는 '2017년 새해맞이 특가 이벤트'를 펼친다. 투어컴그룹에서 각 50%를 후원하기로 한 것. 작품 구매자들은 50%가 할인된 가격으로 작품을 만날 수 있다. 이와 함께 100만원 이상 구입 시엔 최초로 대한민국을 모험으로 출항하는 투어컴크루즈의 11만톤급의 크루즈 여행상품권을 선물로 받을 수 있다. **문의 063-224-3608. /정해은 기자



정영신 전북소설가협회 회장 선출

전북소설가협회는 지난 8일 정기총회를 열고 정영신 소설가(한서대학교 문학박사)를 신임회장으로 선출했다고 밝혔다. 회 회장은 "앞으로 전북소설가협회 역대 회장님들과 선배님들의 유지를 받들어서 '전북소설문학상'의 전통을 이어갈 것이며, 전북소설가협회 회원들 간의 폭넓은 교류를 위해 정기적인 소설 세미나 개최와 의미 있는 문학기행 등을 갖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제6회 '전북소설문학상'부터는 '찾아가는 문학상'을 새롭게 단장하여 수상자에게 창작지원금 일부와 300만원 상당의 부상과 함께 상패를 수여하겠다"고 덧붙였다. 정영신 신임 회장은 2006년 월간문학 7월호의 소설 '엄마의 시간표'로 등단하였으며, '빈틈의 물안개'로 제3회 '전북소설문학상'을 수상했다. 제11대 전북소설가협회 사무국장 겸 편집위원장을 역임했다. 이날 부회장은 박은주 소설가를 선임했다. /정해은 기자



도, 용기장 이현배씨 보유자 인정

진안군은 9일 '진안고원형용기장'이 전라북도 무형문화재 제57호로 종목 지정 됐으며, 용기장 이현배씨가 보유자로 인정되었다고 밝혔다.

진안고원형용기장 이현배(55)씨는 23년간 진안 백운면 손내마을에서 용기점을 운영하면서 서울시립미술관 등에서 수차례의 개인전을 선보이고 있으며, 국립나주문화재 연구소와 협업을 통해 대형 용관을 복원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특히 2008년에는 손내용기가 출품한 달항아리와 전골술 작품이 유네스코 무



이현배씨

아 지난 6일 전라북도 무형문화재로 지정됐다. 용기장 이현배씨는 1991년 용기제작

에 입문하여, 전남 보성 박나섬 용기장으로 부터 남부식 용기의 정형을 교육 받았고, 1993년부터 백운면 손내용기에서 옛날 화려했던 진안 도자문화의 전통과 맥락을 이어가며 '진안고원형용기'를 생산해오고 있다.

용기장 이현배씨가 이어가고 있는 진안고원형용기는 일반적인 남부식 용기보다 어깨가 훨씬 발달하여 있어 마이산처럼 솟아오른 힘과 역동성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이항로 군수는 "앞으로도 무형문화재 발굴 및 지정에 적극 노력해 진안의 전통문화 계승 발전에 이바지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힘있고 역동적인 진안고원형용기 전북무형문화재 지정

따별로 풀어보는 오늘의 운세

홍주미 백운철학연구소 소장 H.P: 010-6890-1468, 홈페이지: http://www.philsilab.com/

(2017년 1월 10일)

▷쥐띠
48년생: 손윗사람으로 인해 근심 걱정할 일이 생기니 미리 대비하라.
60년생: 일의 능률이 올라가고 능력을 인정받는 운이다.
72년생: 재물운이 좋으니 적극적으로 진행하라.
84년생: 하고자 하는 일에 시비가 따르니 언행에 주의가 필요한 운이다.

▷소띠
49년생: 일의 결실을 맺으면 뒷심을 잃지 말라.
61년생: 기존의 행동으로 인해 곤란한 상황에 처할 수 있으니 자기 것이 아니면 욕심내지 말라.
73년생: 중요한 물건을 잃어버리거나 손재수가 따르는 운이다.
85년생: 정신적으로 소모가 많은 운이다.

▷호랑이띠
50년생: 좋은 기운이 가득으로 힘한다.
62년생: 진행하고자 하는 일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움직여라.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
74년생: 말로 인한 화를 주의하라. 말 없는 말이 천리를 가는 법이다.
86년생: 힘들었던 사람에게는 사람으로 인해 해결된다.

▷토끼띠
51년생: 자신의 예상보다 좋은 결실을 맺게 될 듯.
63년생: 천운이 따르는 운이나 결손이 뒷받침해주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으리라.
75년생: 매사에 주의를 기울이고 경계하는 것이 상책이다.
87년생: 급하게 서두르려고 해서 해결되는 일이 아니다.

▷용띠
52년생: 하고자 하는 일에 방해하는 사람이 생기는 운.
64년생: 다른 사람으로 인해 성가신 일들이 발생하니 참견은 금물.
76년생: 뒷 사람의 도움을 받으면 쉽게 해결할 수 있겠다.
88년생: 의욕이 앞서서 운이나 뒷 사람에게 실수 할 수 있으니 주의하라.

▷뱀띠
53년생: 중요한 약속은 점심시간을 활용하라.
65년생: 소외된 사람에게 선심을 베풀면 좋은 일이 생기는 운.
77년생: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받기 어려울 듯.
89년생: 눈앞의 결실을 비리고 행동하지 말고 크게 생각하고 행동하라.

▷말띠
54년생: 금전으로 인해 고민할 일이 생기니 미리 대비하라.
66년생: 연장자의 귀인이 나타나는 운이다. 결손을 잃지 마라.
78년생: 작은 일에 대해서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운이다.
90년생: 이상운이 좋아지는 때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기에도 좋은 운.

▷양띠
55년생: 대인관계, 외부적인 상황, 내부적인 상황이 전반적으로 막혀 있으니 조심하라.
67년생: 문서를 주고받기에는 좋은 운.
79년생: 건강에 주의하라. 소화가 계통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91년생: 타인과 대립하지 말고 우회적으로 해결하면 좋은 결과가 있다.

▷원숭이띠
56년생: 문서운이 들어왔으니 문서를 주고받거나 서류를 정리하기에 좋은 운이다.
68년생: 작은 일은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다.
80년생: 남자는 여자로 인해서 일이 성사되니 통행하면 길하리라.
92년생: 협동을 요하는 일은 미루는 것이 좋겠다.

▷닭띠
57년생: 일을 크게 벌이지 말고 내부에 집중하라.
69년생: 지나친 욕심은 화를 부르고 심신을 아지럽게 하니 마음을 비우는 것이 해답이다.
81년생: 사람으로 인해 마음상할 일이 생기는 운이다.
93년생: 먼 곳으로 움직일 일이 있다면 다음으로 미루는 것이 좋겠다.

▷개띠
46년생: 정확한 판단을 하기 어려울 때에는 잠시 시간을 가지고 생각해보는 것이 좋겠다.
58년생: 경거망동하면 후회할 일이 생긴다.
70년생: 동기간과 일을 도모하면 돈 잃고 사람 잃는 운이니 주의하라.
82년생: 뒷사람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운이다.

▷돼지띠
47년생: 소울했던 사람과의 관계회복에 힘쓰면 좋은 운.
59년생: 기운이 왕성하지 못하니 내실을 다지고 마음을 정리하는 시간으로 보내라.
71년생: 금전운이 불리하다.
83년생: 뒷사람의 도움이 따르니 얌전한 실태라가 풀리는 운이다.